

효율적인 수사면담을 위한 단축형 인지면담 개발

김시업 전우병 김미영
경기대학교

본 연구는 시간적 제약이 많은 수사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면담기법이 될 수 있도록 '단축형 인지면담'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단축형 인지면담을 개발하는 연구 1에서 참여자 168명은 간단한 절도사건을 다룬 비디오를 본 다음, 일주일 후 세 가지 단축형 인지면담 집단(맥락회복, 맥락회복+순서바꾸기, 맥락회복+관점바꾸기)과 통제집단(표준경찰면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각 집단의 처리 전·후에 따른 정확회상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든 단축형 인지면담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많은 정확회상수를 보였으며, 세 가지 단축형 인지면담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류회상수에 있어서는 맥락회복+순서바꾸기 집단이 다른 단축형 인지면담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적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밝혀진 단축형 인지면담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단축형 인지면담을 실시한 집단, 향상된 인지면담(ECI)을 실시한 집단, 그리고 통제집단의 정확회상수와 오류회상수를 알아 보았다. 109명의 참여자들은 비디오를 본 일주일 후, 단축형 인지면담, 향상된 인지면담 및 통제집단에 무선할당되었으며 연구자 2명이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에 따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축형 인지면담은 향상된 인지면담보다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면담시간을 통제하였을 때 단축형 인지면담은 향상된 인지면담보다 정확회상수가 더 많았고, 오류회상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단축형 인지면담은 향상된 인지면담보다 면담시간이 적게 소요되면서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산출시키는 기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인지면담, 단축형 인지면담, 향상된 인지면담, 기억 회상

경찰의 주요 업무는 범죄사건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범죄사건의 해결 여부는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 확보에 있으며(Sanders, 1986), 실제로 전체 수사활동의 85%가 목격자 진술확보, 피해자 면담, 용의자 탐문 활동 등을 포함한 면담활동이라는 보고가 있다(Rand Corporation, 1975). 이렇듯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 확보는 사건해결에 매우 중요하며, 이 때 수사관의 최대 과

제는 목격자나 피해자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여, 완전하고(completeness), 정확한(accuracy) 진술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7,500건의 잘못된 유죄판결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잘못된 유죄 판결 사건들의 약 60%는 목격자의 잘못된 증언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잘못된 목격자 증언이 억울한 사람을 옥살이하게

김시업, 전우병, 김미영은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음.

교신저자 : 김시업,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전화 : 031)249-9194,
E-mail : mind@kyonggi.ac.kr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김병준, 2003).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이와 같이 오류 가능성이 높은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많이 회상시키느냐에 관심을 가져왔다(조은경, 2004). 그 중 Fisher, Geiselman, 그리고 Raymond(1987)는 기존의 전형적인 경찰 표준면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1) 신문조서 양식의 틀에 박힌 질문순서로 인해 피해자나 목격자의 반응과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 형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다. (2) 단답형 질문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나 목격자의 자유스런 회상을 가로 막는다¹⁾. (3) 중립적이지 않은 유도질문(leading question)을 사용하여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을 왜곡시킨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경찰에서 사용하는 표준면담은 목격자 및 피해자의 저장된 정보를 올바로 인출하지 못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유도해낸다고 비판하였다.

Geiselman, Fisher, Firstenberg, Hutton, Sullivan, Avetissian, 그리고 Prosk(1984)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저장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많이 인출시키는 면담기법을 개발하여, 이를 인지면담(cognitive interview, CI)이라고 칭하였다. 이 면담은 약호화 특수성 원리(encoding specificity principle; Tulving & Thomson, 1973)와 기억흔적의 중다오소 관점(the multi-component view of the memory trace; Bower, 1967)과 같은 인지심리학의 두 가지 원리를 기초로 해서 만든 네 가지 기법들로 이루어져 있다.²⁾ 이것은 실제 사건 수사에 사용되는 가장 성공적인 면담기법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Aldridge, 1999). 인지면담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는 실증적인 연구들이 많아짐에 따라, 1993년 영국에서

1) 실제로 경찰 면담과정을 살펴보면(Fisher, Geiselman, & Raymond, 1987; George, 1991), 경찰관은 처음 자신을 소개하고, 피면담자에게 ‘사건에 대해서 생각나는대로 이야기 해 달라’는식의 개방형 자유회상(opened free recall) 질문을 하지만, 피면담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지 평균 7.5초 만에 그들의 진술을 가로막고 단답형 답변을 요구한다.

2) (1) 정신적 맥락회복(the mental reinstatement of context; CR), (2) 모든 것 보고하기(the report everything instruction; RE), (3) 순서바꾸기(the recalling of events in a variety of different orders; RO), (4) 관점바꾸기(the change perspective technique; CP) 등의 네 가지 기법을 통틀어 인지면담이라고 한다. 이 기법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김미영, 김경하, 전우병, 김시업 (2004a)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는 ‘국가수사면담 훈련 프로그램’에 이것을 포함시켜 일선 경찰들에게 훈련시키기 시작하였다(Milne & Bull, 1999). 이후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나라에서 공식적인 경찰면담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지면담 기법을 일선 경찰 수사 현장에 적용시켰을 때,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인지면담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Fisher, Chin, & McCauley, 1990; Fisher, Geiselman, & Raymond, 1987). 특히, Fisher, Chin, 그리고 McCauley(1990)는 일선 경찰관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목격자나 진술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격자들에게 면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일선 경찰관들은 대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측면을 파악하지 못한 채 질문순서도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여, 경찰현장에서도 인지면담을 효과적으로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Fisher와 Geiselman(1992)은 기존의 기억원리를 토대로 한 인지면담에 의사소통의 사회심리학적 원리를 통합시켜, 일련의 질문순서를 규정해 놓은 향상된 인지면담(enhanced cognitive interview, ECI)을 발표하였다. 즉, 향상된 인지면담은 기존의 네 가지 인지면담 기법과 면담자와 피면담자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합시켜 질문 순서를 규정해 놓은 면담기법이다.³⁾

지난 17년 동안 이러한 인지면담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은 인지면담기법이 표준경찰면담기법보다 더 효과적인 면담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했다(Davis, McMahon, & Greenwood, 2005). 그러나 인지면담 사용에 대하여 일선 수사 현장의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및 선호도를 조사한 Longford(1996)는 수사관들이 인지면담을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몇 가지 기법을 제외시키고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일선 수사관들은 인지면담을 구성하고 있는 기법들 중 순서바꾸기와 관점바꾸기 기법을 제외시키고(Clifford & George, 1996; George, 1991), 모든 것 보고하기 또는 맥락회복 기법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on & Noon, 1994; Clifford & George, 1996; Kebbell & Milne, 1998;

3) 향상된 인지면담 기법의 구체적인 질문순서를 보면, (1) 피면담자와 라포형성하기, (2) 면담의 목적 설명하기, (3) 자유회상하기, (4) 질문하기, (5) 심화 기법을 사용한 기억인출(예, 순서 및 관점 바꾸기), (6) 회상된 정보 요약하기, (7) 종료

McMillan, 1997; Memon, Holley, Milne, Kohnken, & Bull, 1994).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Longford(1996)는 일선 수사관들이 기존의 표준경찰면담기법보다 인지면담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순서바꾸기나 관점바꾸기 기법은 피면담자 뿐만 아니라 면담자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 보고하기나 맥락회복 기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기법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의 지지는 불확실하다(Davis et al., 2005). 즉, 일선 경찰관들이 인지면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 기법들을 더 선호하고, 그 선호된 기법만을 가지고 면담하는 이유는 인지면담의 네 가지 기법간 효율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선 수사 현장에서의 인지면담 사용 실태는 학계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토대로 ‘단축형 인지면담 기법’을 개발할 필요성을 갖게 하였다.

Geiselman, Fisher, MacKinnon, 그리고 Holland(1986)는 모든 것 보고하기와 맥락회복 기법의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두 가지 기법들은 통제조건에 비해 더 많은 정확한 정보들을 회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aves(1992)는 맥락회복, 순서바꾸기, 관점바꾸기 기법간의 상대적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맥락회복 기법만이 통제집단에 비해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하였다. 한편, Memon, Cronin, Eaves, 그리고 Bull(1996)은 위의 연구에서 사용된 기법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인지면담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기법들을 모두 비교한 연구들이 아니었다.

한편, Boon과 Noon(1994)은 인지면담의 네 가지 기법 모두를 사용하여 각 기법간 상대적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 참가한 93명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집단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었다 : (1) 모든 것 보고하기+순서바꾸기 집단, (2) 모든 것 보고하기+관점바꾸기 집단, (3) 모든 것 보고하기+맥락회복 집단, (4) 모든 것 보고하기+단순반복회상 집단, (5) 단순반복회상+단순반복회상 집단(통제집단). 무장 강도에 관한 매우 간단한(1분) 편집 비디오를 보고, 이를 후 통제집단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모든 것 보고하기 지시를 받았고, 그 다음 1차 회상검사를

실시하였다. 1차 회상 결과, 통제집단은 모든 것 보고하기 지시를 받은 네 집단보다 정확한 정보를 더 적게 회상하였다. 또한 각 집단에게 두 번째 치치를 가하고 2차 회상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차 회상에서는 (2) 집단만이 (3) 집단보다 정확한 정보를 더 적게 회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확한 정보를 회상하는 데 있어서 관점 바꾸기를 제외한 모든 것 보고하기, 맥락회복 기법이 똑같이 효과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Milne와 Bull(2002), 김미영, 김경하, 전우병, 김시업 (2004b)의 연구에서는 네 가지 기법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미영 등(2004b)은 인지면담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기법을 각각 분리하여 그 기법간 효과성을 비교한 연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들은 인지면담을 구성하고 있는 각 기법들은 상호독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지 기법의 효과를 각각 분리하여 알아보는 것은 타당치 못한 설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순서바꾸기와 관점바꾸기 기법은 기억흔적의 중다요소적 관점에 근거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인출시키기 위한 기법이다. 그러나 이 기법들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이미 맥락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떠오르는 심상의 순서를 바꾸거나, 혹은 심상 속에 떠오르는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정보들을 다시 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맥락회복과 순서바꾸기, 맥락회복과 관점바꾸기를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모든 것 보고하기의 경우 하나의 독립된 기법이라기보다 실제로는 모든 기법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시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경찰표준면담의 경우에서도 떠오르는 모든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다 보고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고 있다. 또한, Davis 등(2005)도 목격자의 회상을 증가시키는데 모든 것 보고하기와 맥락회복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축형 인지면담에는 이러한 기법이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단축형 인지면담은 (1) 모든 것 보고하기+맥락회복, (2) 모든 것 보고하기+맥락회복+순서바꾸기, (3) 모든 것 보고하기+맥락회복+관점바꾸기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단축형 인지면담

중 어떤 기법들로 구성된 단축형 인지면담이 가장 효과적 인지를 알아보고자 「연구 1」을 실시하였다. 인지면담의 하위기법들간의 가장 효과적인 결합기법을 단축형 인지면담이라고 명명한다면, 원래의 인지면담과 비교해 보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래의 인지면담은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면담자와 피면담자간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단순히 네 가지 기법만이 제시되어 있다. 향상된 인지면담(ECI)은 원래 인지면담의 네 가지 기법과 더불어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합시켜 질문 순서를 규정해 놓은 것이다.

「연구 1」에서는 단순히 어떤 기법들로 결합된 면담유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단축형 인지면담이 실제 수사현장에서 효과성을 발휘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인 의사소통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의 순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원래의 인지면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2년에 개발된 향상된 인지면담과 「연구 1」에서 개발된 단축형 인지면담이 면담 소요 시간과 화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혀서 그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 : 단축형 인지면담 개발을 위한 기법간 효과 비교

연구 1에서는 위의 기법간 효과 비교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단축형 인지면담((1) 모든 것 보고하기+맥락회복, (2) 모든 것 보고하기+맥락회복+순서바꾸기, (3) 모든 것 보고하기+맥락회복+관점바꾸기) 중 어떤 유형의 단축형 인지면담이 가장 효과적인 면담기법이 될 수 있는지를 정확화상수와 오류화상수를 통해 알아 보고자 한다. 여기서 모든 것 보고하기 기법은 모든 인지면담 유형 뿐만 아니라 표준경찰면담인 통제 집단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기본 지시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1. 맥락회복, 맥락회복+순서바꾸기, 맥락회복+관점바꾸기 기법 중 올바른 정보를 가장 많이 산출시키는 기법은 어떤 것인가?

연구문제 1-2. 맥락회복, 맥락회복+순서바꾸기, 맥락회복+관점바꾸기 기법 중 오류 정보를 가장 적게 산출시키는 기법은 어떤 것인가?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기도 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남, 여 대학생 전체 168명이었다. 이들을 42명씩 각 면담조건(맥락회복, 맥락회복+순서바꾸기, 맥락회복+관점바꾸기, 통제집단)에 무선탈당하였다. 그러나 실험 과정에서 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했던 9명, 비디오 속에서 발생했던 절도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던 17명, 면담에 참석하지 않았던 8명 등 총 33명의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최종 자료분석에 포함된 사례수는 맥락회복 집단 38명, 맥락회복+순서바꾸기 집단 33명, 맥락회복+관점바꾸기 집단 31명, 통제집단 32명으로, 총 134명이었다. 그 중 남자가 61명(45.5%), 여자가 73명(54.5%)으로 참여자들의 연령은 19세에서 27세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전체 평균 연령은 21.41세였다.

도 구

실험자극재료

실험자극 재료로 사용한 비디오는 절도와 관련된 것으로, 2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비디오 가게에서 DVD CD를 훔치는 사건을 직접 제작·촬영하여 사용하였다. 비디오는 전체 5분 정도의 분량이었고, 그 속에는 비디오 가게 주인 남자 1명(A)과 남자 손님 1명(B), 여자 손님 2명(C, D), 주인공인 여자 절도범 1명(E) 등 5명이 등장한다. 비디오에는 행동요소 25개, 사람요소 68개, 사물요소 15개 등 전체 108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행동맥락의 채점기준에 따라 각 맥락을 나누어 비디오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가 카운터에 앉아서 C를 바라보고 있다/ E가 비디오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 E는 비디오 중앙 진열장으로 가서 비디오를 훑어본다/ 그러다가 E는 다시 DVD 진열장으로 가서 한바퀴 돈다/ C는 벽면의 비디오를 보다가 중앙 비디오 진열장 쪽으로 간다/ C는 중앙 비디오 진열장에서 비디오 하나를 빼서 본다/ 책이 진열되어 있는 벽장에서 뒷모습의 B가 보인다/A가 반납된 비디오 테일을 가지고 중앙 비디오 진열장으로 온다/ A가 비디오 케이스 안에 비디오를 넣는다/ A는 E가

있는 DVD 진열장을 거쳐 다시 카운터로 돌아간다/ E는 DVD를 하나 빼내어 들고 중앙 비디오 진열장으로 간다/ C가 벽면의 비디오를 본다/ E는 비디오 진열장을 거쳐 DVD 진열장으로 가서 DVD를 본다/ C가 DVD 진열장으로 지나가면서 A를 훑깃 쳐다본다/ E는 다시 중앙 비디오 진열장으로 와서 카운터를 등지고 선다/ E는 DVD 속의 CD만 빼서 윗옷 속으로 집어넣는다/ A는 반납된 비디오를 체크하고 있다/ C가 CD를 훔치는 E의 모습을 지켜본다/ E는 DVD 케이스를 들고 중앙 비디오 진열장으로 가서 비디오를 한번 들었다 놓는다/ E는 DVD 진열장으로 가서 빈 케이스만 다시 내려놓는다/ E가 다시 중앙 비디오 진열장으로 온다/ 비디오를 고르는 D의 뒷모습이 보인다/ E가 비디오 하나를 꺼내들고 A에게 뭔가를 묻는다/ 그런 A를 C가 쳐다본다/ E는 다시 비디오를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밖으로 나간다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

면담 질문지는 구체적인 실험 절차와 지시문을 포함시켜 구조화시켰다. 실험자는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에 있는 원문 그대로 읽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며, 각 집단의 참여자들은 할당된 면담 지시문이 포함된 질문지를 받게 된다. 실험자가 실험 절차에 맞게 구조화된 질문지에 따라 질문을 하면 참여자들은 응답지에 각 질문에 해당되는 응답을 써 넣도록 되어있다.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는 인적사항 기재, 비디오 내용에 대한 1차 자유회상, 각 집단에 해당되는 처치 지시문, 2차 자유회상, 구체적인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집단에게 처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맥락회복

마음 속으로 지난 주 비디오를 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디오를 볼 때 옆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고 자신은 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비디오를 볼 때 어떤 기분이 들었죠? 왜 그런 기분을 느꼈죠? 무슨 소리가 들렸나요? 비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물건들을 다시 한번 마음 속으로 떠올리면서 지난 주 비디오를 본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 갔다고 생각하고 마음 속에서 비디오의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순서바꾸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일이 발생한 처음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해서 비디오의 제일 마지막 장면부터 제일 처음 장면까지 거꾸로 생각을 해 보는 거에요. 비디오 내용 중 제일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나요? 어떤 장면이었죠? 바로 그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 이런 식으로 처음 장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관점바꾸기

사람들이 비디오의 내용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자기가 본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이 아닌 그 옆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볼 수 있었던 비디오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옆 자리에 같이 비디오를 보고 있던 사람이 기억나나요? 그 사람은 당신이 볼 수 있었던 내용 말고 다른 것들을 더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꾸미지는 말고 당신이 아닌 옆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모두 적어 주세요.

통제집단

비디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썼던 내용들 말고 다른 정보들이 더 있었는지 비디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 말고 다른 정보가 더 기억이 나나요? 다시 한번 비디오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적어 주세요.

처치 후에는 처치가 가해졌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맥락회복의 경우; 비디오를 볼 때 느꼈던 것들과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쓰시오. 순서바꾸기의 경우; 비디오의 마지막 장면부터 처음 장면까지 쓰시오. 관점바꾸기의 경우;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기억나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것들을 더 떠올릴 수 있었는지를 쓰세요). 그리고 나서 처치 후 2차 자유회상을 시켰다. 그 다음 사람요소에 대한 질문(A, B, C, D, E의 키, 몸무게, 상·하의 종류와 색깔, 헤어스타일, 신발의 종류와 색깔, 악세사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과 사물요소에 대한 질문(비디오가게의 내부모습, 컴퓨터, 텔레비전, 에어컨 등)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질문을 실시하였다.

절 차

모든 실험은 실험 참여자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의 목적을 '자극의 민감성에 관한 실험'이라고 설명하면서, 비디오 내용에 나오는 비디오 수가 몇 개인지를 세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사건에 대한 우연적인 목적 상황을 인위적으로나마 연출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모든 참여자에게 절도 사건이 포함된 비디오를 보게 한 후, 다른 사람과 절대 상의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비디오를 본 일주일 후 실험자는 실험참여자를 각 집단에 무선 할당하였고 구조화된 면담질문지를 통해 그 순서에 따라 회상검사를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인지면담은 원래 일대일 개별 면담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인지면담을 사용한 개별 면담연구는 면담자와 피면담자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전체 면담시간이 큰 편차가 생기고, 또한 전체 질문의 수도 크게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체 면담 시간, 질문수 등을 측정하여 이 변인들을 통제하고 있으며(Milne & Bull, 2002), 실험자는 인지면담의 지시문을 그대로 읽어 감으로써 면담자와 피면담자간의 상호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통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자 변인으로 많은 연구결과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때문에 집단 인지면담을 실시한 연구도 있다(Fisher, Falkner, & Trevisan, 2000). 따라서 단축형 인지면담을 구성하고 있는 기법들 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통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대일 개별 면담보다는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실험절차는 다음과 같다.

라포 형성

라포(rapport)는 면담에서 면담자와 피면담자간의 촉진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예비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일대일 면담 상황에서처럼 라포를 형성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대한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면담자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면담의 목적과 이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실험 참여자들이 어떤 상황에 속해 있는지와 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나머지 면담 절차는 다음과 같다.

맥락회복 집단

자기소개→ 라포형성→ 모든 것 보고하기→ 1차 자유회상→ 맥락회복 치치→ 치치 확인 질문→ 2차 자유회상→ 구체적인 질문→ 종료

맥락회복+순서바꾸기 집단

자기소개→ 라포형성→ 모든 것 보고하기→ 1차 자유회상→ 맥락 회복+순서바꾸기 치치→ 치치 확인 질문→ 2차 자유회상→ 구체적인 질문→ 종료

맥락회복+관점바꾸기 집단

자기소개→ 라포형성→ 모든 것 보고하기→ 1차 자유회상→ 맥락회복+관점바꾸기 치치→ 치치 확인 질문→ 2차 자유회상→ 구체적인 질문→ 종료

통제집단

자기소개→ 라포형성→ 모든 것 보고하기→ 1차 자유회상→ 단순반복회상 치치→ 확인 질문→ 2차 자유회상→ 구체적인 질문→ 종료

자료처리

1·2차 자유회상시 응답한 정보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에 대한 채점은 연구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가 하였다. 채점자는 면담 유형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이며, 평가를 하기 전에 연구자로부터 행동맥락, 사람, 사물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채점 절차에 대한 훈련을 거치고 예비 테스트를 수 차례 결친 후 실질적인 채점을 실시하였다. 채점기준은 크게 행동맥락, 사람, 사물정보로 나누어 비디오 속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된 응답을 하였을 때 1점씩 주어, 그 총합을 정확회상수로 하였다. 한편, 비디오의 내용과 틀리거나 있지도 않은 내용을 첨가하여 응답한 경우 1점씩 주어 그 총합을 오류회상수로 하였다. 그 이외에, 주관적인 해석이나 감정이 들어간 반응에 대한 것은 채점하지 않았다(예; 훔친 여자가 예뻤다, 어두운 분위기였다 등). 이렇게 해서 1차 자유회상에서의 정확회상수와 오류회상수를 사전 회상수로 설정하였고, 2차 자유회상과 구체적인 질문에서 나타난 정확회상수와 오류회상수를 사후 회상수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채점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집단(맥락회복, 맥락회

복+순서바꾸기, 맥락회복+관점바꾸기, 통제집단)에 따라 사전·사후 정확회상수와 오류회상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

단축형 인지면담기법들이 정확회상수에 미치는 효과

세 가지 유형의 단축형 인지면담 기법들이 정확회상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정확회상수와 사후 정확회상수의 차이를 반복측정 ANOVA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고, 이것의 변량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각 집단의 사전 정확회상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락회복 집단이 평균 7.97개(표준편차 4.30), 맥락회복+순서바꾸기 집단은 평균 8.09개(표준편차 4.19), 맥락회복+관점바꾸기 집단은 평균 7.62개(표준편차 2.79), 통제집단은 평균 6.94개(표준편차 4.06)로 이 집단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3, 130) = 0.673, n.s.$). 따라서 인지면담 치치 전 각 집단의 정확회상수에 대한 회상능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 연구의 무선할당이 제대로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사전 정확회상수는 평균 7.59개(표준편차 3.90), 전체 사후 정확회상수는 평균 16.07개(표준편차 7.78)로 사전·사후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30) = 567.778, p < .001$). 즉, 사전 정확회상수보다 사후 정확회상수가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단축형 인지면담기법간 사전·사후 정확회상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M(SD)

	사전 정확회상수	사후 정확회상수	전 체
맥락회복*	7.97(4.30)	18.39(6.55)	13.18(5.19)
맥락회복+순서바꾸기*	8.09(4.19)	18.88(6.84)	13.48(5.26)
맥락회복+관점바꾸기*	7.26(2.79)	18.16(6.90)	12.71(4.67)
통제집단	6.94(4.06)	8.38(5.80)	7.66(4.75)
전체	7.59(3.90)	16.07(7.78)	11.83(5.47)

*사후검증 결과 사전·사후 정확회상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표시한 것임.

표 2. 단축형 인지면담기법간 사전·사후 정확회상수 평균의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피험자내				
사전사후	4684.961	1	4684.961	567.778*
사전사후*집단	1044.035	3	348.012	42.176*
오차	1072.681	130	8.251	
피험자간				
집단	1482.987	3	494.439	9.934*
오차	6469.118	130	49.762	

* $p < .001$

또한 집단간 평균 정확회상수에서도 맥락회복 집단이 평균 13.18개(표준편차 5.19), 맥락회복+순서바꾸기 집단은 평균 13.48개(표준편차 5.26), 맥락회복+관점바꾸기 집단은 평균 12.71개(표준편차 4.67), 통제집단은 평균 7.66개(표준편차 4.75)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130) = 9.934, p < .001$). 이를 사후검증한 결과 (LSD), 단축형 인지면담의 세 집단(맥락회복, 맥락회복+순서바꾸기, 맥락회복+관점바꾸기)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통제집단보다 모두 유의미하게 더 많은 정확회상수를 나타냈다(맥락회복, $t = 5.53, df = 130, p < .001$; 맥락회복+순서바꾸기, $t = 1.24, df = 130, p < .001$; 맥락회복+관점바꾸기, $t = 5.05, df = 130, p < .001$). 이것은 사전·사후 정확회상수를 합한 평균값이므로, 각 집단의 사후 정확회상수만을 가지고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사전·사후 정확회상수를 합한 집단간 주효과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즉, 맥락회복($t = 10.02, df = 130, p < .001$), 맥락회복+순서바꾸기($t = 10.50, df = 130, p < .001$), 맥락회복+관점바꾸기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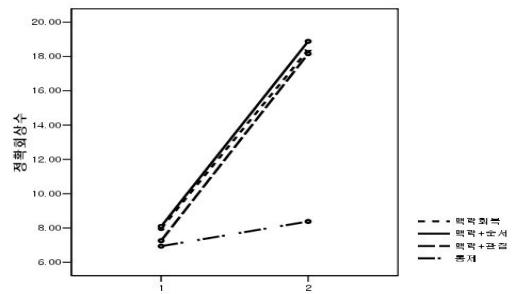


그림 1. 인지면담기법과 정확회상수의 상호작용효과

단($t=9.79$, $df=130$, $p<.001$)은 통제집단보다 모두 유의미하게 더 많은 정확회상수를 보였으며, 단축형 인지면담의 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단축형 인지면담의 세 가지 유형 모두가 정확회상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사후 정확회상수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130)=42.176$, $p<.001$). 그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락회복 집단의 사전 정확회상수가 평균 7.97개(표준편차 4.30), 사후 정확회상수가 평균 18.39개(표준편차 6.55)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t=-7.61$, $df=37$, $p<.001$), 맥락회복+순서바꾸기 집단의 사전 정확회상수가 평균 8.09개(표준편차 4.19), 사후 정확회상수가 평균 18.88개(표준편차 6.84)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t=-7.73$, $df=32$, $p<.001$). 맥락회복+관점바꾸기 집단도 마찬가지로 사전 정확회상수가 평균 7.26개(표준편차 2.79), 사후 정확회상수가 평균 18.16개(표준편차 6.90)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t=6.34$, $df=30$, $p<.001$), 통제집단은 사전 정확회상수가 평균 6.94개(표준편차 4.06), 사후 정확회상수가 평균 8.38개(표준편차 5.80)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152$, $df=31$, n.s.). 따라서 통제집단은 사전과 사후 정확회상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인지면담의 각 기법들을 치치한 집단들은 사전보다 사후의 정확회상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단축형 인지면담 기법들이 오류회상수에 미치는 효과

세 가지 단축형 인지면담기법간 오류회상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고, 이것의 변량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각 집단의 사전 오류회상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락회복 집단이 평균 2.42개(표준편차 1.90), 맥락회복+순서바꾸기 집단은 평균 1.71개(표준편차 1.34), 맥락회복+관점바꾸기 집단은 평균 2.68개(표준편차 2.43), 통제집단은 평균 2.50개(표준편차 2.38)으로 이 집단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3, 130)=1.401$, n.s.). 따라서 인지면담 치치 전 각 집단의 오류회상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무선할당이 제대로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단축형 인지면담기법간 사전·사후 오류회상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M(SD)

	사전 오류회상수	사후 오류회상수	전 체
맥락회복*	2.42(1.90)	7.42(4.00)	4.92(2.75)
맥락회복+순서바꾸기*	1.71(1.34)	4.80(3.91)	3.26(2.46)
맥락회복+관점바꾸기*	2.68(2.43)	7.34(3.85)	5.01(2.83)
통제집단*	2.50(2.38)	8.31(6.35)	5.41(4.02)
전 체	2.32(2.05)	6.97(4.75)	4.65(3.13)

*사후검증 결과 사전·사후 정확회상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표시한 것임.

표 4. 단축형 인지면담기법간 사전·사후 오류회상수 평균의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피험자내				
사전사후	1434.517	1	1434.517	208.622**
사전사후*집단	64.058	3	21.353	3.105*
오 차	893.898	130	6.876	
피험자간				
집 단	178.097	3	59.366	3.180*
오 차	2426.956	130	18.669	

* $p<.05$, ** $p<.001$

표 3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 오류회상수(평균 2.32, 표준편차 2.05)와 사후 오류회상수(평균 6.97, 표준편차 4.75)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30)=208.622$, $p<.001$). 즉, 인지면담의 기법들을 치치하기 전보다 치치한 후에 오류회상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집단간 오류회상수를 살펴보면, 맥락회복 집단은 평균 4.92개(표준편차 2.75), 맥락회복+순서바꾸기 집단은 평균 3.26개(표준편차 2.46), 맥락회복+관점바꾸기 집단은 평균 5.01개(표준편차 2.83), 통제집단은 평균 5.41개(표준편차 4.02)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130)=3.180$, $p<.05$). 이를 사후검증한 결과(LSD, 맥락회복, 맥락회복+관점바꾸기, 통제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맥락회복+순서바꾸기는 맥락회복($t=1.66$, $df=130$, $p<.05$), 맥락회복+관점바꾸기($t=1.75$, $df=130$, $p<.05$), 통제집단($t=2.15$,

$df=130, p<.01$) 보다 유의미하게 적은 오류회상수를 나타냈다. 또한, 사후 오류회상수만을 가지고 집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역시 맥락회복+순서바꾸기 집단은 맥락회복($t=-2.62, df=130, p<.05$), 맥락회복+관점바꾸기($t=-2.54, df=130, p<.05$), 통제집단($t=-3.51, df=130, p<.01$) 보다 유의미하게 적은 오류회상수를 산출시켰고, 나머지 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맥락회복+순서바꾸기 집단만이 유의미하게 더 적은 오류회상수를 산출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사후 오류회상수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130)=3.105, p<.05$).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맥락회복 집단의 사전 오류회상수가 평균 2.42개(표준편차 1.90), 사후 오류회상수가 평균 7.42개(표준편차 2.75)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t=-6.41, df=37, p<.001$), 맥락회복+순서바꾸기 집단의 사전 오류회상수가 평균 1.71개(표준편차 1.34), 사후 오류회상수가 평균 4.80개(표준편차 3.91)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t=-4.23, df=32, p=.000$). 맥락회복+관점바꾸기 집단도 마찬가지로 사전 오류회상수가 평균 2.68개(표준편차 2.43), 사후 오류회상수가 평균 7.34개(표준편차 3.85)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t=-5.83, df=30, p<.001$), 통제집단은 역시 사전 오류회상수가 평균 2.50개(표준편차 2.38), 사후 오류회상수가 평균 8.31개(표준편차 6.35)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4.88, df=31, p<.001$). 즉, 모든 집단은 사전보다 사후에 오류회상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맥락회복+순서바꾸기 집단은 단축형 인지면담의 다른 세 유형(맥락회복, 맥락회복+관점바꾸기,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적은 오류회상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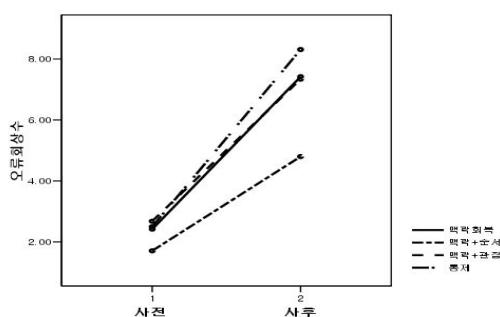


그림 2. 인지면담기법과 오류회상수의 상호작용효과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정확회상수에 있어서 단축형 인지면담의 각 집단은 모두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정확회상수를 보였다. 그러나 오류회상수에 있어서는 맥락회복+순서바꾸기 집단만이 다른 단축형 인지면담 집단(맥락회복, 맥락회복+관점바꾸기)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적은 오류회상수를 산출시켰다. 따라서, 맥락회복+순서바꾸기 기법으로 구성된 단축형 인지면담이 오류회상수를 가장 적게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단축형 인지면담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인지면담은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를 회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의 수사관들은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임의적으로 일부 기법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실제 수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단축형 인지면담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맥락회복, 맥락회복+순서바꾸기, 맥락회복+관점바꾸기 기법들로 구성된 세 가지 유형의 가설적인 단축형 인지면담을 설정하였고, 이 면담유형들 중 어떤 유형의 면담이 정확회상수를 향상시키면서 오류회상수가 적은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단축형 인지면담 모두 정확회상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각 유형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류회상수에 있어서는 맥락회복과 순서바꾸기 기법으로 구성된 단축형 인지면담이 나머지 유형의 단축형 인지면담보다 더 적은 오류회상수를 산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축형 인지면담 기법으로는 정확회상수를 증가시키면서 다른 기법에 비해 오류회상수를 적게 산출시키는 맥락회복+순서바꾸기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순서바꾸기 지시가 문제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데 알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회상시킬 것이라는 Geiselman과 Fisher(1989), Geiselman과 Callot(1990) 등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Davis 등(2005)은 순서바꾸기로 사건을 회상시키는 것은 목격자가 경험하게 되는 주관적인 요구(demand)를 최소화시키므로 이 기법이 오류 정보를 증가시키는 걸 막는 보호적

인 메카니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맥락회복과 순서바꾸기를 결합시킨 기법은 가장 적은 오류회상수를 산출시키면서 다른 집단과 유사하게 정확한 회상수를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Holliday(2003) 역시 아동에게 판점바꾸기 기법을 제외한 나머지 기법들로 구성된 인지면담을 실시하여 회상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전 회상보다 사후 회상에서 정확회상수도 증가하였으나, 오류회상도 역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차 회상에서는 자유회상만을 하였고, 2차 회상 시 자유회상과 함께 구체적 질문까지 하게 되므로 질문의 수가 증가한다. 사후 회상에서 문제가 되는 오류회상수가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구체적 질문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구분하여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사람, 행동, 사물 정보 중 사람 정보에서 정확정보와 함께 오류 정보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사람 정보 중 주로 옷 색깔에서 빨간색이었는데 주황이나 비슷한 계열의 색으로 응답하는 등의 오류 회상이 증가하였다. 사건 정보에 있어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며 잘못 회상했을 경우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들에서는 회상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축형 인지면담’을 만들기 위해서 구성된 각 기법들이 회상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적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개별면담 방식보다는 집단면담 방식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즉, 모든 집단의 참여자들에게 구조화된 면담질문지를 사용하여 일정시간 내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각 집단의 면담시간 차이를 통제하였으며, 면담자와 피면담자간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단축형 인지면담은 실제 ‘향상된 인지면담’과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제한점들이 있다. 즉, 단축형 인지면담이 향상된 인지면담보다 시간 절감, 그리고 정확회상수와 오류회상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단축형 인지면담이 향상된 인지면담보다 더 적은 면담시간이 소요되는가를 확인하고, 면담시간을 통제했을 때 정보 회상

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인지를 밝혀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연구 2가 계획되었다.

연구 2 : 단축형 인지면담과 향상된 인지면담이 기억 회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2에서는 맥락회복과 순서바꾸기 기법으로 구성된 단축형 인지면담을 향상된 인지면담과 비교해 봄으로써,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은 일선 현장의 수사관들에게 효과적인 면담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면담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1. 단축형 인지면담은 향상된 인지면담과 면담 소요시간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2-2. 단축형 인지면담은 향상된 인지면담만큼 정확한 정보를 산출시키는가?

방법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경기도 소재 K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대학생 전체 109명이었다. 109명의 참여자들은 단축형 인지면담 집단 36명, 향상된 인지면담 집단 36명, 통제집단 37명으로 무선할당되었다. 실험 참여자들은 남자 48명(45%), 여자 61명(55%)이었고, 연령은 20세에서 28세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 연령은 21.28세였다.

면담자

면담자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2인으로, 이들은 인지면담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면담과정에서 면담자 변인의 효과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2명의 면담자에게 할당되는 참여자들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역균형화(counterbalance) 방법을 사용하여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여 단축형 인지면담 36명(면담자 1은 17명, 면담자 2는 19명), 향상된 인지면담 36명(면담자 1은 18명, 면담자 2는 18명), 통제집단 37명(면담자 1은 18명, 면담자 2는 19명)을 면담하였다.

두 명의 면담자들은 인지면담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

로 해 왔으며, 인지면담 워크샵에 참여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면담자들은 이미 인지면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절차를 위해서 Fisher와 Geiselman(1992)의 2주간 훈련 스케줄에 따라 주 3회(1회당 2시간) 총 12시간의 훈련을 하였다. 훈련의 첫 번째 부분은 면담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인 라포 형성, 유도질문을 피하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 이야기 중간에 방해하지 않는 것, 적극적 경청, 휴식을 허용하는 것 등에 대한 것들을 다시 습득하였다. 훈련의 두 번째 부분은 단축형 인지면담, 향상된 인지면담, 표준면담으로 분리를 시켜 진행되었으나 기본적인 면담의 틀은 동일하였고 인지면담의 하위 기법 치치 유무에 따른 차이만 있었다. 먼저 면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인지면담이 만들어진 배경 및 그 구체적인 하위 기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Fisher와 Geiselman이 1992년 발간한 「Memory-Enhancing Techniques For Investigative Interviewing」의 내용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법에 대한 이해 및 면담 절차에 대한 기술들을 습득했다. 실제로 그 이전에도 면담자들은 인지면담으로 일대일 개별면담을 실시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그 때 채록한 면담 내용들을 읽으면서 잘못된 과정 및 지시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기법 지시의 명확성과 절차상의 오류를 되짚어 보았다. 표준면담은 기법 치치만 하지 않았을 뿐, 면담의 구조는 다른 면담 유형과 동일했다.

도구

실험자극재료

연구 2에서 사용한 비디오 자극 재료는 연구 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연구 1에서 나눈 행동맥락의 채점기준과 사람정보, 사물정보에 대한 채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

면담자들이 면담 훈련 절차를 거치긴 하였으나 질문의 순서나 면담자의 단어 사용이 디름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문제를 고려하여 면담자들이 사용할 면담 질문지를 구조화시켜 작성하였으며,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의 원안에 충실한 면담을 하였다. 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는 연구 1과 동일하다.

절차

면담을 하기 전 비디오를 보여주는 과정은 연구 1에서 와 마찬가지이다. 실험 참여자들은 수업을 듣던 강의실에서 절도와 관련된 비디오를 보고 실험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일주일 후 비디오를 본 강의실과 다른 연구실에서 일대일 개별면담을 받았다.

라포 형성

본 연구에서는 피면담자가 면담실에 들어왔을 때 자기 소개와 함께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중립적인 질문(예, 실험을 할 때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고향이 어디인지, 고향에 가는지 등)을 하였고, 사탕 또는 차를 권하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했다. 피면담자가 면담실의 분위기와 면담자에 대하여 익숙해 지도록 신변에 대한 의사소통을 한 후, 면담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피면담자가 속해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피면담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또한 면담자가 라포를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능동적인 경청의 명확한 신호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피면담자가 말하는 중요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응답해 줌으로써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라포를 유지하였다.

그 외의 면담 절차와 기법 지시들은 연구 1에서와 동일하였다.

각 집단의 치치의 내용 및 면담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축형 인지면담 집단

자기소개-> 라포형성-> 모든 것 보고하기-> 1차 자유 회상-> 맥락회복처치-> 2차 자유회상-> 구체적 질문-> 순서바꾸기처치-> 요약-> 종료

향상된 인지면담 집단

자기소개-> 라포형성-> 모든 것 보고하기-> 1차 자유 회상-> 맥락회복처치-> 2차 자유회상-> 구체적 질문-> 순서바꾸기처치-> 관점바꾸기처치-> 요약-> 종료

통제집단

자기소개-> 라포형성-> 모든 것 보고하기-> 1차 자유 회상-> 단순반복회상-> 2차 자유회상-> 구체적 질문-> 요약-> 종료

자료처리

각 집단의 면답 내용을 모두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내용을 채록(verbatim)하여 실험의 내용을 모르는 한 사람이 채점하였다. 최종적으로 채점한 것은 1차 회상시 참여자들이 응답한 정보와 차치후 요약 단계에서 응답한 정보이었다. 채점의 기준과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했다. 즉, 참여자들이 응답한 행동백락, 사람, 사물 정보들에 대하여 비디오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각각 1점씩 주어, 이것의 총 합을 정확회상수로 하였다. 그리고 오류회상수는 실험참여자가 회상하였으나 비디오에서 제시된 정보와 다른 정보이거나 혹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낸 정보를 1점씩 주어 이것의 총합을 오류회상수로 하였다. 1차 회상에서 응답한 내용의 정확회상수와 오류회상수를 사전 회상수로 하였고, 요약단계에서 응답한 정확회상수와 오류회상수를 사후 회상수로 하여 이들간 차이검증을 하였다.

연구의 기본 설계는 2(사전·사후)×3(면답 유형에 따른 집단) 요인설계로서, 면답시간을 공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인 정확회상수와 오류회상수의 차이를 반복측정 ANCOVA로 분석하였다.

결과

면답 유형별 소요된 평균 면답시간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면답 유형에 따라 면답 소요시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면답 유형별 사전 회상에 대한 면답시간에 있어서 각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사전 면답시간은 차치 전 회상에서 구체적 질문 없이 개방형 질문만을 사용하여 질문하였을 때 피면답자가 반응한 시간이다. 향상된 인지면답이 평균 2.89분(표준편차 1.65), 단축형 인지면답이 평균 2.78분(표준편차 1.57), 통제집단이 평균 2.95분(표준편차 .97)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2, 106)=.131$, n.s.). 따라서, 각 집단의 사전 회상에 대한 면답시간은 시간적으로 통제가 잘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집단간 전체 면답 소요시간은 향상된 인지면답이 평균 31.17분(표준편차 4.97), 단축형 인지면답이 평균 27.78분(표준편차 4.19), 통제집단이 평균 19.35분(표준편차 3.94)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 106)=70.493$, $p<.001$). 이를 사후검증한 결과(Tukey test), 향상

된 인지면답($t=11.82$, $df=106$, $p<.001$), 단축형 인지면답($t=8.43$, $df=106$, $p<.001$)은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향상된 인지면답과 단축형 인지면답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39$, $df=106$, $p<.01$). 즉, 단축형 인지면답은 향상된 인지면답보다 유의미하게 더 적게 면답시간이 소요되었고, 통제집단보다는 더 많은 면답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집단간 면답시간의 차이는 정확회상수와 오류회상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오랜 시간동안 면답을 할수록 정확회상수와 오류회상수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요된 면답시간을 통제하여 각 집단이 기억회상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단축형 인지면답과 향상된 인지면답이 정확회상수에 미치는 효과

면답시간을 공변인으로 하여 면답유형별 사전·사후 정확회상수에 대한 차이를 반복측정 공변량분석하였다. 면답유형별 사전·사후 정확회상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5에 제시되어 있고, 면답유형별 사전·사후 정확회상수의 차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 정확회상수는 향상된 인지면답 집단이 평균 7.51개(표준오차 .72), 단축형 인지면답 집단은 평균 8.75개(표준오차 .61), 통제집단은 평균 8.56개(표준오차 2.31)로,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 106)=2.151$, n.s.). 따라서 사전 각 집단의 정확회상수에 대한 회상능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면답유형별 사전·사후 정확회상수의 평균 및 표준오차 M(SE)

	사전	사후	전체평균
	정확회상수	정확회상수	
향상된 인지면답*	7.51(.72)	21.40(1.23)	14.46(.84)
단축형 인지면답*	8.75(.61)	24.91(1.04)	16.83(.71)
통제집단	8.56(2.31)	9.55(1.98)	9.06(.92)
전체	8.27(.34)	18.62(.58)	13.45(.40)

주) 각 평균 및 표준오차는 공변량에서 평가된 것을 제거한 추정된 평균임.

* 사후검증 결과 사전 정확회상수와 사후 정확회상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표시 한 것임.

표 6. 면담유형별 사전·사후 정확회상수의 공변량분석표

변 량 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피험자내				
사전사후	18.845	1	18.845	1.259
사전사후*면담시간	68.464	1	68.464	4.576*
사전사후*집단	1283.500	2	641.750	42.890**
오 차	1571.080	105	14.963	
피험자간				
면담시간	29.217	1	29.217	.840
집 단	1392.266	2	696.133	20.019**
오 차	3651.210	105		

* $p<.05$, ** $p<.001$

표 5와 표 6에서 사전·사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사전 정확회상수는 평균 8.27개(표준오차 .34)이고 사후 정확회상수는 평균 18.62개(표준오차 .58)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105) = 1.259$, n.s.). 이는 사후 정확회상수에 있어서 향상된 인지면담 집단이 평균 21.40개, 단축형 인지면담 집단이 평균 24.91개였으나, 통제집단의 사후 정확회상수가 평균 9.55개로 매우 적어서 이것이 전체 사후 정확회상수의 평균값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각 집단간 주효과를 살펴보면, 단축형 인지면담은 평균 14.46개(표준오차 .84), 향상된 인지면담은 평균 16.83개(표준오차 .71), 통제집단은 평균 9.06개(표준오차 .92)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5) = 20.019$, $p<.001$). 이를 사후검증한 결과(LSD), 단축형 인지면담은 향상된 인지면담과 통제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정확회상수를 산출시켰고($t=2.37$, $df=106$, $p<.05$; $t=7.77$, $df=106$, $p<.001$), 향상된 인지면담과 통제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5.40$, $df=106$, $p<.001$). 즉, 면담시간을 통제했을 때, 단축형 인지면담은 향상된 인지면담보다 더 많은 정확회상수를 산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정확회상수와 사후 정확회상수의 평균 값이므로 사후정확회상수만을 가지고 각 집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사후검증한 결과(LSD), 인지면담의 두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모두 유의미하게 많은 정확회상수를 산출시켰으며(향상된 인지면담; $t=3.68$, $df=106$, $p<.05$, 단축형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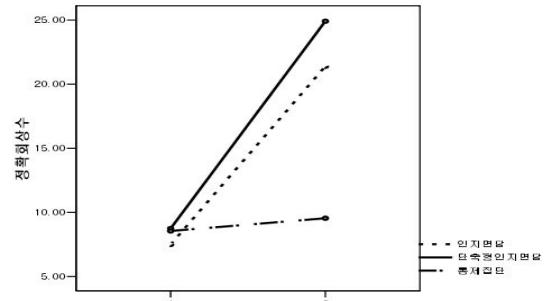


그림 3. 면담유형과 정확회상수의 상호작용효과

면담; $t=7.03$, $df=106$, $p<.001$), 향상된 인지면담과 단축형 인지면담 집단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50$, $df=106$, $p<.05$). 즉, 면담시간을 통제했을 때 단축형 인지면담이 가장 많은 정확회상수를 산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전·사후 정확회상수와 집단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5) = 42.890$, $p<.001$).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축형 인지면담 집단의 사전 정확회상수는 평균 7.51개(표준오차 .72), 사후 정확회상수는 평균 21.40개(표준오차 1.23)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t=76.95$, $df=35$, $p<.001$), 향상된 인지면담 집단의 사전 정확회상수는 평균 8.75개(표준오차 .61), 사후 정확회상수는 평균 24.91개(표준오차 1.04)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t=-55.56$, $df=35$, $p<.001$). 그러나 통제집단은 사전 정확회상수가 평균 8.56개(표준오차 2.31), 사후 정확회상수는 평균 9.55개(표준오차 1.98)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94$, $df=36$, n.s.). 따라서 통제집단은 사전과 사후 정확회상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단축형 인지면담과 향상된 인지면담 집단은 정확회상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단축형 인지면담과 향상된 인지면담이 오류회상수에 미치는 효과

면담유형별 오류회상수의 평균 및 표준오차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고, 이것의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면담유형별 사전·사후 오류회상수의 평균 및 표준오차 M(SE)

	사전 오류회상수	사후 오류회상수	전체 평균
향상된 인지면담*	1.42(.22)	5.22(.68)	3.32(.38)
단축형 인지면담*	1.44(.18)	5.14(.58)	3.29(.32)
통제집단*	1.00(.24)	7.48(.75)	4.24(.41)
전 체	1.29(.10)	5.95(.32)	3.62(.18)

주) 각 평균 및 표준오차는 공변량에서 평가된 것을 제거한 추정된 평균임.

* 사후검증 결과 사전 정회화상수와 사후 정회화상수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표시 한 것임.

먼저 각 집단의 사전 오류회상수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상된 인지면담 집단이 평균 1.42개(표준오차 .22), 단축형 인지면담 집단은 평균 1.44개(표준오차 .18), 통제집단은 평균 1.00개(표준오차 .24)로,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 106)=.316$, n.s.). 따라서 인지면담 처리 전 각 집단의 오류회상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표 7과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 오류회상수(평균 1.29, 표준오차 .10)와 사후 오류회상수(평균 5.95, 표준오차 .32)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 105)=.086$, n.s.). 따라서 사전과 사후의 오류회상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면담유형별 사전·사후 오류회상수의 공변량분석표

변 량 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피험자내				
사전사후	.477	1	.477	.086
사전사후*면담시간	41.186	1	41.186	7.387**
사전사후*집단	43.829	2	21.914	3.931*
오 차	585.421	105	5.575	
피험자간				
면담시간	21.450	1	21.450	3.094
집 단	20.635	2	10.317	1.488
오 차	727.950	105	6.933	

* $p<.05$, ** $p<.01$

또한 각 집단간 오류회상수에 있어서 향상된 인지면담 집단이 평균 3.32개(표준오차 .38), 단축형 인지면담 집단이 평균 3.29개(표준오차 .32), 통제집단이 4.24개(표준오차 .41)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F(2, 105)=1.488$, n.s.). 이를 사후 오류회상수만을 가지고 분석하였을 때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5)=2.743$, $p<.05$). 이를 사후검증한 결과(LSD), 향상된 인지면담은 단축형 인지면담($t=.08$, $df=106$, n.s.), 통제집단($t=-2.26$, $df=106$, n.s.)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축형 인지면담은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적은 오류회상수를 산출시켰다($t=-2.34$, $df=106$, $p<.05$).

한편 사전·사후 오류회상수와 집단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 105)=3.931$, $p=.023$). 그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상된 인지면담의 사전 오류회상수는 평균 1.42개(표준오차 .22), 사후 오류회상수는 평균 5.22개(표준오차 .68)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t=-29.23$, $df=35$, $p<.001$), 단축형 인지면담 또한 사전 오류회상수 평균 1.44개(표준오차 .18), 사후 오류회상수 평균 5.14개(표준오차 .58)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3.64$, $df=35$, $p<.001$). 마찬가지로 통제집단도 사전 오류회상수 평균 1.00개(표준오차 .24), 사후 오류회상수 평균 7.48개(표준오차 .75)로 사전보다 사후 오류회상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t=-49.85$, $df=36$, $p<.001$).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단축형 인지면담은 향상된 인지면담이나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정회화상수를 보이고 있고, 오류회상수에서도 통제집단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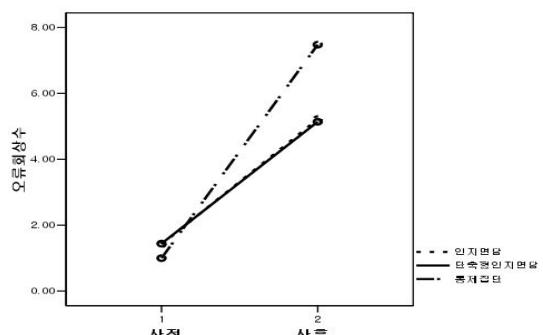


그림 4. 면담유형과 오류회상수의 상호작용효과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담시간에 있어서도 단축형 인지면담(평균 27.78분)은 향상된 인지면담(평균 31.17분)보다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연구 2는 연구 1에서 밝혀진 단축형 인지면담이 향상된 인지면담보다 더 효과적인 면담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일대일 개별면담을 통해서 알아보자 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축형 인지면담은 향상된 인지면담보다 더 적은 면담시간이 소요된다. 인지면담 훈련을 받는 54%의 경찰관들은 인지면담을 좋은 면담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러한 인지면담 기법을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하고 있다(Kohnken et al., 1994; Mello & Fisher, 1996). 즉, 인지면담에 대한 대부분의 부정적 의견은 면담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데 집중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단축형 인지면담이 향상된 인지면담 보다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결과는 단축형 인지면담이 현장에서 사용되기에 더 적절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단축형 인지면담은 향상된 인지면담 보다 정확한 회상수를 산출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다. 단축형 인지면담은 면담시간을 통제했을 때 향상된 인지면담보다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회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류 회상수에 있어서는 단축형 인지면담이 통제집단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가지 결과는 단축형 인지면담이 향상된 인지면담에 비해 더 적은 면담시간이 소요되며, 보다 많은 정확한 회상수를 산출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단축형 인지면담을 사용하게 된다면 더 적은 시간을 들이면서 정확한 회상을 보다 많이 산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일선 현장의 수사관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단축형 인지면담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형의 단축형이 정확회상수와 오류회상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

로써 가장 효과적인 단축형 인지면담을 찾아냈다. 또한 이렇게 밝혀진 단축형 인지면담이 향상된 인지면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밝혀보자 하였다.

단축형 인지면담을 찾고자 했던 연구 1에서는 맥락회복과 순서바꾸기 기법으로 구성된 단축형 인지면담이 더 적은 오류회상수와 많은 정확회상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의 면담이 가장 효과적인 단축형 인지면담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원래의 인지면담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보고하기, 맥락회복, 순서바꾸기, 관점바꾸기의 네 가지 기법중 관점바꾸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기법으로 구성된 인지면담의 단축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외된 관점바꾸기 기법은 실제로 여러 현장이나 연구들에서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제외시키는 기법이다. 특히, Memon, Cronin, Eaves, 그리고 Bull(1993)은 7세 이하의 아동들이 관점바꾸기와 같은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따르기 어렵다는 것을 밝혔고, Boon과 Noon(1994)은 아동을 면담할 때 관점바꾸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작화(confabulation)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장의 수사관들은 순서바꾸기나 관점바꾸기 기법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Clifford & George, 1996; Memon, Holley, Milne, Kohnken, & Bull, 1994), 실제로 이 기법들이 기억 향상에 거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Boon & Noon, 1994; Mello & Fisher, 1996). 그러나 Geiselman 등(1989, 1990)은 순서바꾸기 지시가 정보를 정확하게 회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Davis 등(2005) 또한 이 기법이 오류 정보의 회상을 막는 보호적인 메카니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결과는 본 연구 1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관점바꾸기 기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기법으로 구성된 단축형 인지면담이 보다 효과적인 면담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2는 관점 바꾸기 기법을 제외한 단축형 인지면담이 실제 일대일 면담 상황에서 향상된 인지면담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효과적인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단축형 인지면담은 향상된 인지면담보다 더 적은 면담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면담시간을 통제하였을 때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회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축형 인

지면담은 향상된 인지면담에 비해서 시간적인 절감에 있어서나 정확한 정보의 회상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단축형 인지면담은 향상된 인지면담에서 관점바꾸기만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표준면담에 비해 여전히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즉,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단축형 인지면담이 시간적 제약이 많은 일선 현장의 수사관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확한 정보를 산출 시킬 수 있는 면담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회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단축형 인지면담이 실제적인 효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수사 장면과 법정 장면에서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의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목격자 및 피해자들의 전술에서 보다 많은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단축형 인지면담은 면담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기준의 인지면담보다 더 많이 회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면담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진술녹화제도’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일선 수사현장의 종사원들에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면담·신문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의 단축형 인지면담이 목격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면담 프로토콜을 제공하며, 오류를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를 회상시킬 수 있는 질문 방식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연령층에게 단축형 인지면담을 실시하였을 때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결론은 유보적이다. 또한 실제 수사에서의 목격자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험실이 아닌 현장 연구를 통해 단축형 인지면담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미영, 김경하, 전우병, 김시업 (2004a). 인지면담기법이

- 아동과 성인의 사건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137-151.
- 김미영, 김경하, 전우병, 김시업 (2004b). 인지면담의 네 가지 기법간 효과 비교 연구. *한국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논문집 및 심포지움 자료집*, 19-30.
- 김병준 (2003). 잘못된 목격자(유아)의 증언과 억울한 옥살이(4). *수사연구지*, 12, 149-153.
- 조은경 (2004).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증거학보 수사연구지, 2, 18-23.
- Aldridge, N. C. (1999). Enhancing children's memory through cognitive interviewing : An assessment technique for social work practic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6(2), 101-126.
- Boon, J. C. W., & Noon, E. (1994). Changing perspectives in cognitive interviewing. *Psychology, Crime and Law*, 1, 59-69.
- Bower, G. (1967). A multicomponent theory of the memory trace. In K. W. Spence, & J. T. Spence, (Eds.),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Vol. 1, pp. 229-325). New York : Academic Press.
- Clifford, B. R., & George, R. (1996). A field investigation of training in three methods of witness/victim investigative interviewing. *Psychology, Crime and Law*, 2, 231-248.
- Davis, M. R., McMahon, M., & Greenwood, K. M. (2005). The efficacy of mnemonic components of the cognitive interview : towards a shortened variant for time-critical investigation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9, 75-93.
- Eaves, R. (1992). *An evaluation of the efficacy of the mnemonic components of the cognitive interview*. Unpublished undergraduate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Middlesex.
- Fisher, R. P., Falkner, K. L., & Trevisan, M. (2000). Adapting the cognitive interview to enhance long-term(35years) recall of physical activit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2), 180-189.
- Fisher, R. P., & Geiselman, R. E. (1992). *Memory-enhancing techniques for investigative interviewing* :

- The cognitive interview.* Springfield, IL : Charles Thomas.
- Fisher, R. P., Geiselman, R. E., & Raymond, D. S. (1987). Critical analysis of police interviewing techniqu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5, 177-185.
- Geiselman, R. E., & Callot, R. (1990). Reverse versus forward recall of script-based text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4, 141-144.
- Geiselman, R. E., & Fisher, R. P. (1989). The cognitive interview technique for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In D. Raskin(Ed.), *Psychological Methods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Evidence*.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1-215.
- Geiselman, R. E., Fisher, R. P., Firstenberg I., Hutton, L. A., Sullivan, S. J., Avetissian, I. V., & Prosk, A. L. (1984). Enhancement of eyewitness memory :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cognitive interview.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2, 74-80.
- Geiselman, R. E., Fisher, R. P., MacKinnon, D. P., & Holland, H. L. (1986). Enhancement of eyewitness memory with the cognitive int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99, 385-401.
- George, R. C. (1991). *A field evaluation of the cognitive interview*. Unpublished Master's thesis, Polytechnic of East London.
- Holliday, R. E. (2003). The effect of prior cognitive interview on children's acceptance of misinformatio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7, 443-457.
- Kebbell, M., & Milne, R. (1998).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eyewitness factors in forensic investigation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 323-330.
- Köhnken, G., Thürer, C., & Zoberbier, D. (1994). The cognitive interview : Are the interviewers' memories enhanced too?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8, 13-24.
- Longford, G. (1996). *The use of the cognitive interview by police officers trained on the National Investigative Interviewing Cours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Institute of Police and Criminological Studies, University of Portsmouth.
- McMillan, G. (1997). *The cognitive interview : It's use and effectiveness*. Unpublished BA (Hons) Policing and Police Studies, University of Portsmouth.
- Memon, A., Cronin, O., Eaves, R., & Bull, R. (1993). *An empirical test of the mnemonic components of the cognitive interview*. In G. Davies, S. Lloyd Bostock, M. McMurran & C. Wilson(Eds), *Psychology, Law and criminal justice : International developments and research in practice*. Berlin : De Gruyter.
- Memon, A., Holley, A., Milne, R., Kohnken, G., & Bull, R. (1994). Towards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interviewer training in evaluating the cognitive interview.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8, 641-659.
- Mello, E. W., & Fisher, R. P. (1996). Enhancing older adult eyewitness memory with the cognitive interview.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0, 403-417.
- Milne, R., & Bull, R. (1999). *Investigative interviewing-psychology and practice*. John Wiley & Sons, LTD.
- Milne, R., & Bull, R. (2002). Back to Basics : A componential Analysis of the Original Cognitive Interview Mnemonics with Three Age Group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6, 743-753.
- Rand Corporation. (1975).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Vols 1-3. Rand Corporation Technical Report R-1777 DOJ. Santa Monica.
- Sanders, G. S. (1986). *The usefulness of eyewitness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e investigators*. Unpublished manuscrip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Tulving, E., & Thomson, D. M. (1973). Encoding specificity and retrieval processes in episodic memory. *Psychological Review*, 80, 352-373.

Developing the Shortened Cognitive Interview Procedure for Effective Investigation

Si Up Kim Woo Byoung Jhon Mi Young Kim
Kyonggi University

This research developed the shortened cognitive interview(SCI) that have used effectively at interviewing with eyewitness, victims, and suspects, then examined shortened cognitive interview's effects.

Research 1 was examined the effects of CR, CR+RO, CR+CP mnemonic for developing the shortened cognitive interview. Seven days after watching a video-recording of a theft event, 168 participan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CR, CR+RO, CR+CP) or the control group. By the result, it's no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s for correct recalls. but CR+RO has significantly less incorrect recalls than other three groups. Therefore, the shortened cognitive interview is consist of CR and RO.

Research 2 was examined the effects of the shortened cognitive interview to compare with enhanced cognitive interview(ECI). Seven days after watching a video-recording, 109 participants were randomly allocated to either the experimental groups(ECI, SCI) or the control group. Two interviewer conduct interviewing through the structured interview questionnaire. The SCI has significantly shorter times for interviewing and more correct recalls than ECI.

Key words : Cognitive interview, Shortened cognitive interview, Enhanced cognitive interview,
Recall

원고접수 : 2006년 1월 13일
심사통과 : 2006년 2월 4일